

T V

TV 9일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Table with columns: 채널A, KBS1, KBS2, MBC, KBC/SBS.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.

아버지와 자녀간 사랑, 진정한 소통이란?

가정의 달 특별 4부작 다큐 '아버지의 딸' 10일부터 매주 목요일

아버지와 자녀간의 사랑, 진정한 소통, 화해, 이해를 추구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.

KBS 1 TV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밤 10시 가정의 달 특별기획 4부작 '아버지의 딸'을 방영한다.

10일 방송되는 1부에서 소개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'딸 바보' 이광영씨와 '아빠 바보' 세 딸의 이야기다.

경북 봉화군에 딸들에 둘러싸여 매일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아빠가 있다. 바로 세 딸밖에 모르는 '딸 바보' 김광영(40) 씨다. 15살 큰 딸 자영이, 13살 진영이, 10살 민영이까지 세 딸의 화합과 연애상담은 기본, 딸과 남자친구의 200일 기념 이벤트를 챙겨주는 자상한 아빠다.

딸들 역시 아빠를 닮아 '아빠 바보'다. 큰 딸 자영이는 신문 보급소를 운영하는 아빠 광영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 청소년영상페스티벌에서 초종동부 대상을 수상했을 정도다.

그런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광영씨는 늘 모자를 쓰고 있고 왼팔이 중요하게 다뤄진다. 사실 광영씨는 지체장애 2급으로 왼팔이 남들보다 짧다. 어릴 적, 광영 씨는 불의의 사고로 왼팔과 머리에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. 한쪽 팔이 불편한데도 10년 넘게 새벽을 달리며 신문과 우유 배달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. 오직 세 딸 때문이다. 광영 씨



는 오늘도 딸들을 위해 달린다.

두 번째 이야기는 '팡공집 아빠의 보물찾기'다.

한 마당에 팡공처럼 불어있는 두 집. 바로 건축가 이현욱(43) 씨의 작품이자 현재 거주 중인 곳이다. 이 집을 짓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현욱 씨의 아들 한세(10)와 딸 은세(6) 때문이다. '한참 커가는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'에 대해 고민하던 현욱 씨는 뽕뽕한 주택가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선물하고 싶었다.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팡공집이다.

아이들을 위해 지은 집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현욱 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. 건축가로서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. 하지만 이런 모순이 또 있을까.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 위해 지은 마당에 정작 빠진 아빠는 부재중인 것이다. 하지만 시간 없다는 타령은 이제 그만, 현욱 씨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.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빠는 늘 빈자리에 있다는 추억을 남길 수 없는 노릇. 비장한 각오로 아이들을 위해 실컷 할 여섯 가지 항목을 적어 내려갔다. 과연 아이들의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아빠의 결심은 과연, 성공할 수 있을까? /연필뉴스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

5월 9일(음 윤3월 19일 庚午)

- 36년생 취직대로 행하라. 48년생 타산지식의 교훈이 되는 날이다. 60년생 계속 되었을 때 효과가 크다. 72년생 여기저기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서 굉장히 바쁘겠다. 84년생 구제적이어서 쉽게 전달된다. 행운의 숫자: 45, 26
- 37년생 과거 방식에서 커다란 힌트를 얻을 수 있다. 49년생 한꺼번에 집중되리라. 61년생 관계가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. 73년생 시간만 낭비한다. 85년생 관점을 달리해보면 여유가 생기리라. 행운의 숫자: 96, 27
- 38년생 숨기 사항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좋으리라. 50년생 둘러서 말하지 말고 정곡을 찌르는 것이 효과적이다. 62년생 지금까지야말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. 74년생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. 행운의 숫자: 54, 12
- 39년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용은 지켜져야 한다. 51년생 계통과 질서를 존중해야겠다. 63년생 맹목적인 칭찬은 의미가 없다. 75년생 일일이 따지면 복잡해지니 큰 가닥을 잡고 매듭 짓는 것이 좋겠다. 행운의 숫자: 02, 25
- 40년생 말하기가 거북스러울 것이다. 52년생 굳이 상대를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. 64년생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이나 장치가 필요하다. 76년생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주의 하라. 행운의 숫자: 74, 72
- 41년생 상대 얼굴빛이 편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. 53년생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. 65년생 가는 곳마다 길성이 비취주니 의욕적으로 뜻을 펼칠 때가 되었다. 77년생 총력 요법이 절실. 행운의 숫자: 19, 07

- 42년생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. 54년생 꿈에 그리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. 66년생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미개척 분야를 다루게 될 수도 있다. 78년생 초심으로 돌아가면 참을 수 있으리라. 행운의 숫자: 28, 55
- 43년생 주관적인 감정은 극복해야 한다. 55년생 편차가 심할 것이니 즉시 수정하라. 67년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. 79년생 무리함이 없도록 상황에 맞게 처신을 잘 하라. 행운의 숫자: 38, 97
- 44년생 싸게 살 수 있는 행운이 따르는 날. 56년생 핵심적인 특징을 파악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 되리라. 68년생 하늘이 준 구우일모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. 80년생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느니라. 행운의 숫자: 89, 35
- 45년생 평소 애던 바대로 자연스럽게 응하면 된다. 57년생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갈림길에 서게 되리라. 69년생 세계 밀어붙여야 승산이 있다. 81년생 순간적인 안위만을 추구하는 것은 불안하다. 행운의 숫자: 63, 75
- 46년생 상대의 잘못을 덮어 주게 된다. 58년생 질질할 필요 없는 것만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자. 70년생 중대한 일이므로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봐라. 82년생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가 있을 수다. 행운의 숫자: 83, 46
- 47년생 삶에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니 주저 말고 따르라. 59년생 대단히 비중 있는 일이지만 기회는 다시 있으느니라. 71년생 일이 경쾌하게 진행되겠다. 83년생 걸은 단단하지만 속이 부드러우니라. 행운의 숫자: 13, 30

"전화상담도 받습니다. 광주일보 독자현영" ☎010-9790-8237

Table with columns: EBS, EBS플러스1, EBS플러스2. Rows list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.

Table with columns: 국모닝 잉글리쉬, 한자이야기, 니하오 풍구위, 오하오우 니혼고. Rows contain language learning content including phrases, translations, and cultural notes.